

성인 손자녀의 조부모 동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조 윤 주(성신여자대학교 전임강사)

출산을 저하와 맞물린 인구 구성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규모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여 경제 활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노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평가와 더불어 성인 자신의 노후 준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이용하여 유년 시절 조부모와의 동거라는 공통의 현상을 경험한 성인 손자녀를 대상으로 조부모와 함께 한 생활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기준(criterion) 표본 추출에 의거하여 서울에 소재한 H 대학교에 재학중인 20대 초반의 대학생 26명(남 20명, 여 6명)이 선정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여 특정한 현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발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획득된 자료는 수평화 작업을 통해 의미군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전반적인 기술을 하고자 먼저 사례내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사례간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타당화 검증은 부적인 사례 분석과 내용을 윤독하여 동료 검토를 하였다.

주요 연구 문제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는 주름살, 흰머리, 병약함의 순으로 신체적인 측면의 취약함을 지적했던 반면 삶의 지혜 등 이들의 연륜을 높이 평가하거나 따뜻함, 인자함, 정 등의 정서적인 측면은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둘째, 동거시 장단점으로 좋았던 점은 부모가 맞벌이일 때 식사나 간식, 옷, 준비물을 챙겨 주시는 등 도구적 지원, 용돈을 주시는 물질적 지원이 있었으며, 이 중 꾸지람을 들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거나 위안 또는 안정을 제공해 준 정서적 지원이 많았다. 하지만 불편했던 부분은 세대 차이나 잔소리 등 간섭, 고정관념, 예의를 중시하는 것 등이 있었으며 특별히 없었다는 응답도 상당하였다.

셋째, 지원의 교류 현황은 아직 이들이 독립된 성인으로서 역할하기에는 여건이 불충분하여 비용보다는 혜택을 받은 면이 더 많았다. 따라서 손자녀가 조부모께 해 드린 일들은 안마나 이야기 상대가 대부분이었고, 자신이 조부모에게 받은 도움은 서비스적 지원외에 정서적 보호막으로서, 대리 양육자로서, 지혜와 근면 학습 기회 제공자로서 등 다양하였다. 넷째, 조부모와 부모와의 관계는 대다수가 원만하거나 좋았다고 하여, 이런 경우 향후 자신의 부모 부양에도 긍정적이었다. 또한 남학생은 처가 부모의 부양에도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끝으로 참여자 자신의 바람직한 노후 준비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저축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조부모 동거 경험과 부모 부양 계획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며 노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